



겪어본 적 없는 세상 새로운 생존의 조건

The World We've Never Experienced : New Ways to Survive

2020.10.30 금요일



SBS 대표이사 사장 박정훈

올해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특별한 한 해입니다.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란 말이 역사를 구분하는 새로운 용어가 될 정도로 우리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개인과 가정은 물론 학교, 기업, 국가 그리고 온 지구촌이 근대사 이후 처음 겪는 혼돈 속에서 생존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사 30주년을 맞은 SBS는 사회공헌프로그램인 SBS D포럼(약칭 SDF)을 통해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암울하고 불안한 세상에서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꿀 수 있는 통찰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겪어본 적 없는 세상-새로운 생존의 조건>, 바로 올해 SDF의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시했던 업무와 학업, 여가활동 등 삶의 방식들이 한꺼번에 바뀐 상황에서 SDF는 활력을 잃어가는 우리 공동체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해법을 찾아보려 합니다.

포럼의 형태도 ‘겪어본 적 없는 세상’에 맞게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얼굴을 마주하지는 못하지만, 증강현실을 이용해 시공간을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공론의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멈춰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멈춘 세상에 SDF가 희망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초청의 글

002

포럼 소개

006

주제 설명

010

프로그램

프롤로그: 개막식

020

오프닝 퍼포먼스

창사30주년 축사

개막사

Part 1.

024

session 1 21세기 스토리

SBS 제안

session 2 SDF2020 연구발표

불확실성 재난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계약

session 3 코로나19, 언론과 병원에 던진 것

강평

Part 2.

042

session 4 겪어본 적 없는 시대의 이코노미

session 5 음식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Part 3.

054

session 6 증강현실이 바꾸는 일터의 미래

session 7 움직임의 힘, 불안을 건너다

Part 4.

062

session 8 인류세와 팬데믹: 인간 너머의 관심

session 9 사회계약을 넘어 자연계약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문명사적 성찰

session 10 처음 겪는 공기, 다시 찾은 과학: 공기 위기를 살아내기

session 11 객석이 사라졌다

session 12 NO CHALLENGE? NO CHANGE!

Part 5.

086

session 1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교와 도시의 미래

session 14 도시 경제, 도넛에서 답을 찾다

session 15 우리 동네, 삶의 중심으로 진입하다

session 16 페르마타: 멈춤

112

116

251

252

SDF 지난 1년

연사 명단

포럼 파트너사

포럼 만든 사람들

SBS

D포럼 소개

미래를 여는 담대한 도전 SDF

SDF는 SBS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사로서,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실시해온 대표적인 지식 나눔 프로젝트입니다. SBS는 지난 2004년부터 서울디지털포럼(SDF)과 미래한국리포트(FKR)라는 양대 비영리 포럼을 통해, 기술이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또 한국이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학두는 무엇인지 앞서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과 사회 문제를 따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 시대에서, 변화에 부응하고 더 많은 시청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두 포럼을 계승 발전시킨 SBS D포럼으로 SDF시즌2의 문을 열었습니다. D포럼에서는 ‘디지털’의 관점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성, 민주주의, 꿈, 존엄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합니다.

2020년 창사 30주년을 맞은 SBS D포럼은 ‘겪어본 적 없는 세상 - 새로운 생존의 조건’이라는 주제 아래 코로나19를 계기로 달라지는 사회 현상을 들여다보고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포럼에 앞서 국내외 전문가들과 심층적 연구를 진행하고, ‘SDF다이어리’(뉴스레터)를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공론화 돼야 할 학두들을 앞서 제시 했습니다.

올해 SBS D포럼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관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새로운 방식으로 관객과 만나기 위한 ‘영상 대면’ 포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공간을 뛰어넘어 관객들과 실시간 ·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초대형 스크린 영상 시스템’을 도입한 ‘랜선 포럼’을 진행합니다. SBS 예능프로그램 <트롯신이 떴다>를 통해 처음 개발되고 기술력을 확인한 이 시스템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무대와 관객을 잇는 새로운 소통방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SDF2020은 그 시스템을 활용해 포럼에 최적화한 방식으로 보완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SDF2020의 전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며 이후 TV프로그램(창사기념 SDF스페셜) 편성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SDF 시즌1: 서울디지털포럼 연혁

- 2004 디지털 컨버전스 혁명: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 2005 쿼바디트 유비쿼터스: 디지털 미래사회와 조망
- 2006 인텔리전스: 디지털 진화의 미래, 지능형 서비스, 로봇 그리고 미래의 삶
- 2007 미디어 빅뱅! 경제와 사회에 대한 영향
- 2008 상상력: 기술, 정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우주 저 너머까지
- 2009 스토리: 새 장을 열다
- 2010 신(新) 르네상스: 또 하나의 세상을 깨우다
- 2011 초(超)연결 사회: 함께하는 미래를 향하여
- 2012 공존(共存): 기술, 사람 그리고 큰 희망
- 2013 초(超)협력: 내일을 위한 솔루션
- 2014 혁신적 지혜: 기술에서 공공성을 찾다
- 2015 깨어있는 호기심: 새로운 돌파구를 찾다
- 2016 관계의 진화: 함께 만드는 공동체



SDF 시즌2: SBS D 포럼

- 2018 새로운 상식 - 개인이 바꾸는 세상
- 2019 변화의 시작 - 이게 정말 내 생각일까?

미래한국리포트 연혁

- 제 1차 고령화 충격, 활로는 없는가 (2004)
- 제 2차 일자리 위기와 노동의 미래 (2005)
- 제 3차 한국의 마지막 선택, 교육 동방학습지국의 비전 (2005)
- 제 4차 행복의 조건과 가족의 미래 (2006)
- 제 5차 꿈을 주는 리더십을 찾아서
: 당신은 어떤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2007)
- 제 6차 기후의 역습: 지구의 위기와 한반도의 미래 (2008)
- 제 7차 위기를 넘어서 (2009)
- 제 8차 2010 대한민국 '소통' (2010)
- 제 9차 경쟁의 딜레마: 공존의 新생태계를 찾아서 (2011)
- 제 10차 '착한 성장사회'를 위한 리더십 (2012)
- 제 11차 행복한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 한국형 거버넌스는? (2013)
- 제 12차 한국사회 재설계 공공성 그리고 착한 성장사회 (2014)
- 제 13차 광복70년 좋은 정부의 조건
: 전환기를 넘어 착한 성장 사회로 (2015)
- 제 14차 대한민국 新인구론: 생활공공성과 착한 성장사회. (2016)
- 제 15차 함께 쓰는 대한민국 성장방정식
: 양극화 해소와 착한 성장사회 (2017)



SDF
SBS D FORUM

SDF2020 주제

겪어본 적 없는 세상 - 새로운 생존의 조건

전 지구적 위기 직면한 인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오르다.

2020년 신종 바이러스가 세계의 일상을 마비시켰다. 지난 100년간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대유행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굳건해 보였던 우리 사회, 경제 시스템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촘촘하게 연결돼 있던 세계는 도미노처럼 무너졌다. 사스, 메르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까지 주기가 짧아지는 신종 바이러스의 도래. 그리고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이어진 최악의 호주 산불과 같은 ‘기후 위기’ 징후는 이제 지구가 더 이상 지금 같은 방식의 개발을 버텨내지 못하는 한계에 도달한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위험들은 개인과 기업, 사회, 국가, 국제사회 모두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시험대 위에 올려놓았다.

지구적 위기 앞에 드러난 기존 시스템의 한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 물건을 사고 파는 방식,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 그리고 노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과거 우리의 일상과 관행, 제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 특히, ‘비용 최소화’를 강조하는 시장 논리의 세계화가 의료와 보건과 같은 인간 삶의 필수적인 체계를 얼마나 허약하게 방치해 왔는지, 투명하지 못한 정부의 위기 대처가 얼마나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지 여실히 나타났다. 산업혁명 시대의 산물인 대형화와 획일화 방식은 이제 더 이상 그대로 작동하기 어려워 보인다. 우리는 무엇을 바꾸고 무엇은 지켜내야 할까?

SBS 창사 30주년, SDF2020

: 거대한 전환의 시작점에서 새로운 생존의 조건을 묻다.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위기는 개인과 공동체에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지속 가능한 삶은 가능한 것인지, 삶이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협력하고 진화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다. 인류는 전염병, 전쟁 같은 문명의 위기를 겪으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왔다. 지금 우리는 다시 거대한 전환의 시작점에 서 있다. 기존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 새로운 생존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다.

SDF2020은 SBS 창사 30주년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복합적 위기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실험, 연구, 콜라보 프로젝트, 국내외 사례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보다 담대한 미래로 가는 여정을 시작해보려 한다.

SDF 2020 프로그램

PART 1

08:30~ 09:00	랜선 관객 웰컴 이벤트
09:00~ 09:15	SDF2020 개막식
	오프닝 퍼포먼스
	창사30주년 축사
	개막사

09:15~09:50 Session1.

21세기 스토리

유발 하라리 (Yuval Noah HARARI)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옥스퍼드대학교 대학원 중세전쟁사 박사

『사피엔스』,『호모 데우스』,『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저자

09:50~09:55 SBS 제안

09:55~10:25 Session2.

SDF2020 연구발표: 불확실성 재난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계약

배영

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한국정보사회학회장

『지금 한국을 읽다』,『압축성장의 고고학』 저자,

『코로나ing』 공저자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아픈 사회를 넘어-사회적 웰빙의 가치와 실천의 통합적 모색』,

『위험사회와 위험인식』 공저자

10:25~10:35 Session3.

코로나19, 언론과 병원에 던진 것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신경외과전문의

10:35~10:40 강평

10:40~10:50 휴식

PART 2

10:50~11:25 Session4.

겪어본 적 없는 시대의 이코노미

신우석 · 유영중

베인 앤드 컴퍼니(Bain & Company) 파트너

*토크 후 Q&A 시간이 있습니다

11:25~11:55 Session5.

음식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마크 비트먼 (Mark BITTMAN)

前 뉴욕타임스 음식전문기자, 푸드 칼럼니스트

컬럼비아대학교 메일먼 공중보건대학원 식품정책특별자문

*토크 후 Q&A 시간이 있습니다

11:55~12:35 점심

SDF 2020 프로그램

PART 3

12:35~ 13:00 ━━━━━━ 랜선관객 스페셜 이벤트

13:00~ 13:20 ━━━━━━ Session6.

증강현실이 바꾸는 일터의 미래

이진하

증강현실 플랫폼 '스페이셜' 공동창업자, 최고제품책임자(CPO)

MIT 테크놀로지 리뷰 선정 '35세 이하 혁신가 35인'

13:20~13:50 ━━━━━━ Session7.

움직임의 힘, 불안을 건너다

켈리 맥고니걸 (Kelly MCGONIGAL)

스탠퍼드대학교 심리학 강사

『움직임의 힘』,『스트레스의 힘』 저자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20인'

*토크 후 Q&A 시간이 있습니다

13:50~ 14:00 ━━━━━━ 휴식

PART 4

14:00~ 14:15 ━━━━━━ Session8.

인류세와 팬데믹: 인간 너머의 관점

박범순

카이스트 인류세연구센터장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14:15~ 14:35 ━━━━━━ Session9.

사회계약을 넘어 자연계약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문명사적 성찰

김홍중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카이스트 인류세연구센터와 공동연구

『사회학적 파상력』,『마음의 사회학』,『눈먼 자들의 국가』 저자

14:35~ 14:50 ━━━━━━ Session10.

처음 겪는 공기, 다시 찾은 과학: 공기 위기를 살아내기

전치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카이스트 인류세연구센터

『사람의 자리: 과학의 마음에 닳다』 저자

14:50~ 15:10 ━━━━━━ Session11.

액석이 사라졌다

곽승영

SBS 예능본부 책임 프로듀서(CP)

쌍방소통형 언택트 공연 연출 포맷 기획/개발

<트롯신이 떴다>, <미운우리새끼>, <스타킹> 등 연출

*진행 중 Q&A 시간이 있습니다

SDF 2020 프로그램

15:10~ 15:50 ————— Session 12.

NO CHALLENGE? NO CHANGE!

은혁 · 신동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
온라인 전용 콘서트 <비욘드 더 슈퍼쇼> 기획 · 연출 · 공연
*토크 후 Q&A 시간이 있습니다

15:50~ 16:00 ————— 휴식

PART 5

16:00~ 16:20 ————— Session 1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교와 도시의 미래

유현준

홍익대 도시건축학과 교수, 건축가
『공간이 만든 공간』,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저자
*토크 후 Q&A 시간이 있습니다

16:30~ 16:45 ————— Session 14.

도시 경제, 도넛에서 답을 찾다

일렉트라 쿠루피 (Ilektra KOULOUMPI)

서클 이코노미 선임 도시 전략가
“암스테르담 도넛경제모델” 디자인

16:45~ 17:00 ————— Session 15.

우리 동네, 삶의 중심으로 진입하다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인문학,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다』, 『골목길 자본론』 저자

17:00 ~ 17:55 ————— Session 16.

페르마타: 멤춤

이대형

에이치존 아트디렉터
“Connect, BTS” 기획 · 총괄, 백남준 문화재단 이사
2017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예술감독
前 현대자동차 아트디렉터

김영선

레코딩 아티스트
아트콜렉티브 지구생각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대학원 음악과 교수

이완

현대미술가
2017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대표 작가
제26회 김세중 청년조각상
제1회 삼성미술관 리움 ‘아트 스펙트럼 작가상’

최우정

작곡가
서울대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
前 Ensemble TIMF 예술감독
대표작: 오페라 <1945>, 뮤지컬 <광주>, 음악극 <적로>

한석현

설치미술가
2020 강원키즈트리엔날레 참여작가
2019 “Das Dritte Land 제3의 자연” (베를린 콜투어포룸)
2016 “Megacities Asia” 미국 보스턴 미술관 기획전 등

17:55~ 18:00 ————— 폐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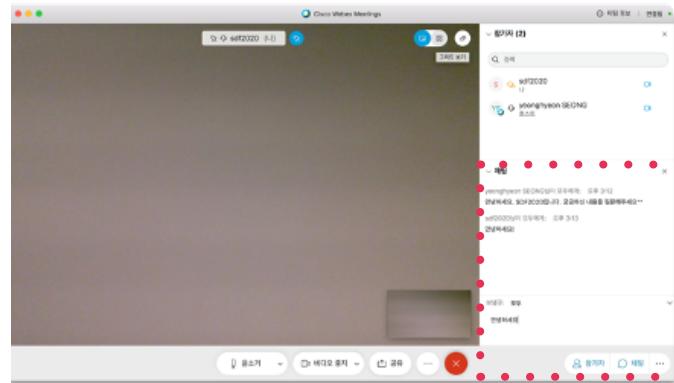
SDF 2020 질의응답 참여 방법

[PC] 좌측 하단의 대화창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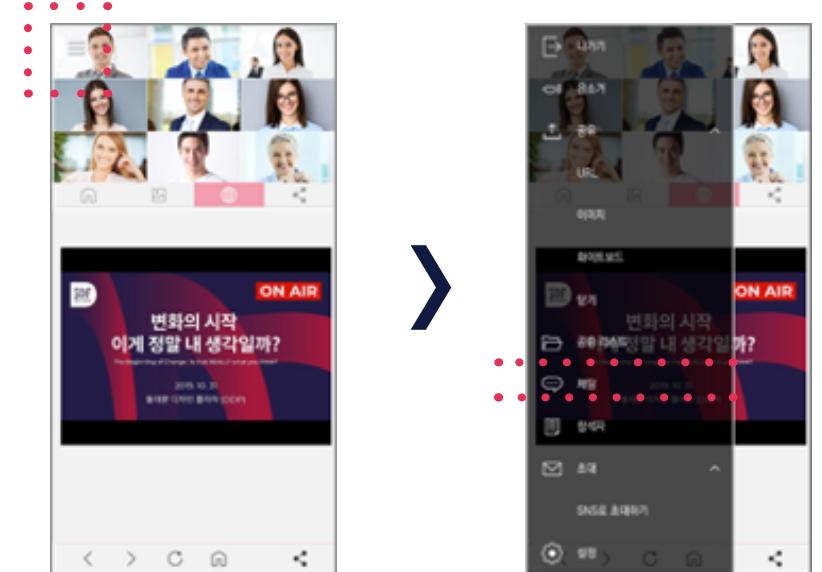


이곳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맥북 사용자] 우측 하단의 채팅창을 통해 연사 및 전체 참가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Mobile] 좌측 상단의 메뉴바 활용



이곳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오프닝 퍼포먼스

개막 영상: 고유시(固有時)¹ - 영원 그 저 편에서부터-

- 이완 현대미술가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추상적인 영상이 나타난다. 이후 생명은 하나의 개별적 시간을 가진 시계의 모습으로 은유된다. 하나의 시계는 작은 벌레, 풀, 나무, 물고기, 고양이, 비둘기, 사람 등 하나의 생명을 상징한다.

하나의 생명을 상징하는 시계는 하나의 완벽한 우주이며 그 생명에게 부여된 고유한 시간이 작동된다. 시계 옆에는 또 다른 시계가 있다. 그리고 많은 시계들이 서로 연결되어 유기적으로 관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모습은 마치 세포들이 군집을 이뤄 또 다른 하나의 생명이 되어가는 모습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 이루어진 인류나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그리고 시계는 점점 멀어진다. 하나의 생명을 은유하는 시계의 형태는 점점 사라지면서 최초에 생명이 시작되던 영상이 다시 돌아온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모든 살아 있는 생명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인과를 지니고 영원히 순환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겪어본 적 없는 세상이 절망스럽게 느껴질지라도 서로의 관계 맺음을 통해 극복해내는 것이 새로운 생존의 조건임을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며, 다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인류의 모습을 기원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¹고유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할 때 그 물체와 함께 움직이는 시계로 갠 시간을 의미한다. 물체의 속도가 다르게 움직일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고유한 시간도 서로 다르게 흐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각자 삶의 상황에 따라 그 생명체의 시간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곡 제목: '기억, 그리고'

작곡: 최우정

연주자: 최해성 - 바이올리ニ스트, 現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곡 제목에는 '기억하고 그 다음에'라는 뜻과 '기억을 그린다'라는 뜻이 섞여 있다. 제대로 기억해 내고 그것을 지금 잘 그려내어야 겪어본 적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김현우 **SBS** 기자 / 8뉴스 앵커

나는 사람들 만나고 취재하고 기사 쓰는 기자이다. 지금은 평일 저녁에 뉴스를 전해 드리고 있다. 매일 하는데도, 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들게 느껴진다. 가슴 답답한 소식이 많을 때 더 그렇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껏 겪어본 적 없는, 훨씬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뉴스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고민하고 또 배우고 있다.



최혜림 **SBS** 아나운서 / 8뉴스 앵커

뉴스가 끝나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가족들 잠든 시간 혼자 책 보는 시간이 소중하다. 하나님의 문장도 접할 때마다 생각과 느낌이 달라지는데 지금의 우리, 지금의 시간들이 어떤 장면으로 기록될지 궁금하다.

예측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격려를 잊지 않았던 그들.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던 때로 기억될 수 있다면 좋겠다.

PART 1.

21세기 스토리

Session 1

21세기 스토리 09:15-09:50

유발 하라리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사피엔스』,『호모 데우스』,『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저자

SDF2020 SBS 제안 09:50-09:55

Session 2

SDF2020 연구발표: 09:55 – 10:25

불확실성 재난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계약

배영

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Session 3

코로나19, 언론과 병원에 던진 것 10:25 – 10:35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강평 10:35 - 10:40

#사피엔스 #미래생존 #빅히스토리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가 전 세계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세웠다.

이전과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 지금, 인류는 어떤
미래를 구상해야 할까?

우리의 생존을 담보하는 미래 이야기는 무엇일까?
거시적 안목, 날카로운 통찰과 예측으로 미래로 건
너가는 힘을 찾는 이 시대 최고의 지성, 유발 하라
리가 말하는 ‘21세기 새로운 스토리’. 그의 단호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SDF2020** 무대를 통해 전해진다.



유발 노아 하라리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저자

유발 노아 하라리 교수는 역사학자이자 철학자로 오늘날 가장 영향력 있는 지성인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고 있다. 그의 책 『사피엔스』, 『호모 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 등은 60개 언어로 번역돼 전세계에서 2750만부가 판매되었다. 특히 『사피엔스』는 버락 오바마, 빌 게이츠, 크리스 에반스, 자넬 모네 등 많은 유명인사들의 추천도서로도 유명하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사피엔스』가 논픽션 분야 저서를 혁신하고 ‘똑똑해지는 책’의 대중화를 이끌었다고 평했다. 2020년 가을, 하라리 교수는 유명 카툰 아티스트 데이비드 반데르(작가), 다니엘 카사나브(일러스트레이터)와 함께 크리에이터 겸 공동작가로 『사피엔스』 내용을 일러스트레이션 형식으로 풀어 쓴 『사피엔스: 그래픽 히스토리 Vol.1 인류의 탄생』도 출판 예정이다.

1976년생인 하라리 교수는 이스라엘 하이파에서 태어나 2002년 옥스포드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피엔스』 책으로 세계적인 석학 대우를 받기 시작하면서 하라리 교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세계적인 정상들과 대담하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와도 기술과 사회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했다. 가디언, 파이낸셜타임즈, 뉴욕타임즈 등에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으며 2020년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서는 인류의 미래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CNN, BBC 등 글로벌 메이저 뉴스 미디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2019년 하라리 교수는 반려자 이지크 야하브와 다학제적 연구기관인 ‘사피엔십’을 공동 창립했다. 사피엔십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하라리 교수는 현재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있으며, 원래는 세계사, 중세사, 군사사를 전공했으나 현재는 거시사(macro-history)에 집중하며 역사와 생물학과의 관계, 호모 사피엔스와 타 동물의 본질적 차이, 역사 속 정의(正義), 역사의 방향성, 인류 역사와 행복의 상관관계, 21세기 과학기술이 초래한 윤리적 딜레마 등을 연구한다.

SBS 제안

지난 10개월 겪어본 적 없는 세상을 맞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지내고 있는 것일까요?

전국 성인 남녀 천 명에게 유무선 전화로 물었더니, 4명 가운데 3명이 코로나 이후 삶이 나빠졌다고 답했습니다.

실직이나 소득 감소 같은 ‘경제적 불안감’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어디까지 영향을 줄지 모른다는 “불확실성”도 삶을 악화시킨 큰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심리적으로는 불안감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외출과 만남의 자제로 인한 우울감과 고립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의 원인은 어떻게 인지하고 있을까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라는 인간의 욕심과 무분별한 개발을 첫 손에 꼽았습니다. 5명 가운데 3명은 이전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특히 40대 이하의 청년층일수록 지금의 모습이 우리 삶의 새로운 표준,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 일상엔 이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친목 모임이나 종교 활동, 단체 회식 등은 향후 비중을 줄이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을 고르는 선택 기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변 자연환경과 생활 편의시설을 편리한 교통이나 학군보다 더 중요하게 꼽은 것이 특히 눈에 띕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를 헤쳐 나가려는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중요해진 가치는 무엇일까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는 답변이 62.8%에 달했습니다.



법과 제도의 준수보다 무려 3배 이상 많은 압도적 선택을 받은 것인데, 뉴노멀 시대 공동체의 지속을 위해서는 강제적 규율보다 상호 배려를 통한 자발적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인류사적 대전환기에 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창사 30주년을 맞은 SBS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비대면 포럼을 열기로 한 것은 어떻게 다르게 같이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t 생존을 위한 사회적 학의를 모색하는 자리에 오늘 SBS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SDF2020 연구 발표 : 불확실성 재난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계약

#사회안전망 #심리방역 #사회적계약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정과 학교, 일터에서 지금
껏 당연히 여겼던 상식과 관행이 흔들리면서 개인
과 기업, 국가를 막론하고 모두가 막연한 불안 속에
생존 전략을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SDF2020** 연
구팀은 지금의 불확실성을 넘는 ‘새로운 사회적 계
약’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 시대가 새롭게 요구하
고, 시민사회가 원하는 ‘사회적 안전망’, 팬데믹 이후
반드시 구축해야할 제도와 시스템은 무엇일까? 지
난 **6개월**, 조사·분석을 통해 겪어본 적 없는 세상의
길을 모색해온 **SDF2020** 연구팀이 팬데믹 이후 지
속 가능한 사회로 가는 ‘생존의 조건’을 제시한다.



배영

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한국정보사회학회장

『지금 한국을 읽다』 등 저자,
『코로나ing』 공저자

사회학을 전공하고 현재 포항공대에서 가르치고 있다. 사회학의 세부 분야 가운데 정보사회학이 주전공이고 정보화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변화를 오랫동안 연구해 왔다. 특히 익명적 환경에서 시작한 관계지만 교류를 통해 서로에 대한 헌신도 가능해지는 온라인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 주목했다. 커뮤니티, SNS, 스마트폰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매체를 매개로 이뤄지는 관계 양상과 특성에 대해 연구를 이어왔다.

작년에는 15년간 서울의 대학에서 학생들과 지내던 생활을 정리하고 포항공대로 내려왔다. 이질적인 특질이 효과적으로 결합될 때 나타나는 효과는 매우 크다. 쉽지 않지만, 문·이과 간 융합적 연구와 교육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여러 일들을 수행 중이다. 올해는 소셜데이터사이언스 연구소를 설립하여 데이터에 기반해서 사회 문제와 이슈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을 결합하는 융합적 성격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융합을 위한 매개이자 근거를 ‘데이터’에 두고 다양한 학문간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 공학 기반의 학교에서 사회과학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체감하면서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여러 효과와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지역에서의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자연스레 사람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물질적 조건도 중요하지만, 긍정적 정서와 주관적 만족 요인에 집중해서 그 발현점을 찾기 위해 연구 중이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아픈 사회를 넘어』,
『위험사회와 위험인식』 공저자

보건학을 전공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다. 국내에서 보건학으로 석사 학위 및 박사 과정 수료까지 마쳤지만 새로 유학을 떠났다.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조직’과 함께 ‘환경과 건강 위기 및 위험’을 학습하고 연구한 뒤 박사학위를 받았고, 귀국 이후에도 보건의료 조직과 건강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현상과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보건학의 강점은 다학제의 ‘융합’과 ‘통섭’에 있으며, 이미 발현된 질병의 치료 이전에 사회적 예방과 관리, 개별 환자에 맞춘 처방 이전에 사회의 다양한 집단들의 소통과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것에 있다고 여겨왔다. 2018년부터 인문사회 학자들과 공동으로 시작한 ‘한국社会의 울분’ 프로젝트가 그 한 예라고 믿고 진행 중이다.

같은 맥락에서, 처음에는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그 자체가 공중보건위기 상황을 초래했겠지만 그런 질병(감염병)의 확산을 넘어 복합사회재난으로 전환되어 가는 현재 시점에서 보건학은 특정한 경계와 구분을 넘어서야 한다고 믿는다. 바이러스와 인간 숙주의 관계가 아닌, 사회적 행위자인 인간들이 형성한 감염 전파의 관계망을 이해하고 다루는 초학제 접근이 시급하고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session 3

코로나19, 언론과 병원에 던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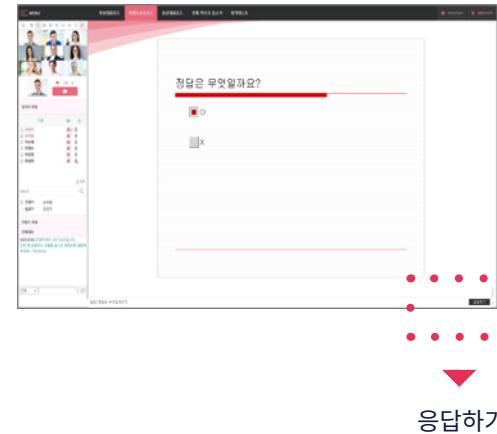
#공공의료 #인포데믹스 #의사기자

코로나19가 일상화된 시대, 수많은 의료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사실과 주장이 뒤섞인 정보의 흥수 속에서 가짜 정보로 인한 공포는 가중되고, 방역망이 속절없이 무너지기도 한다. 코로나19 공포 속에 놓인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어떤 정보와 보도를 원하고 있을까? 나아가 감염병이 일상화되는 시대 우리 사회 공공의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의사로서, 열혈 기자로서 코로나19 취재 현장을 누비고 있는 조동찬 SBS 의학 전문기자에게 팬데믹 시대의 정보 유통과 소비, 그리고 공공의료의 방향성에 대해 묻는다.

*세션 중 화면을 통해 나오는 즉석 설문조사(Live Poll)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설문 조사 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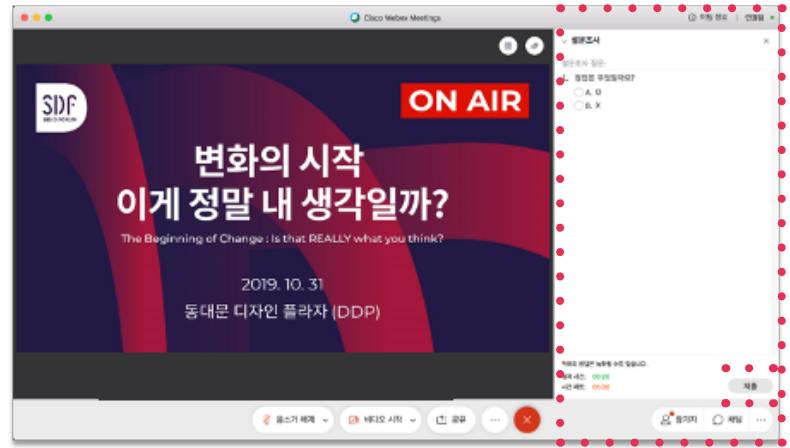
[PC] 답변을 선택하고 ‘응답하기’ 클릭



[모바일] 답변을 선택하고
'응답하기' 클릭



[맥북 사용자] 답변을 선택하고 ‘제출’ 버튼 클릭





조동찬

SBS 의학전문기자, 신경외과 전문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양대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를 취득했다. 27사 79연대 의무 중대장, 국군서울지구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군 복무를 마쳤고, 2008년부터 SBS 의학전문기자로 일하고 있다. 질병을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초기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보도를 주로 하고, 가끔은 가습기 살균제,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인보사 등 무거운 주제를 보도했다. 한국방송대상, 민주언론상, 한국기자상 등의 분에 넘치는 상은 사회적 이슈 보도로 받았지만 건강 정보 보도 역시 같은 비중의 중요함이 있다고 믿고 있다.

의사 면허증을 가지고 기자 일을 하는 것이 업보 탓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고맙게 여긴다. 말기 암을 앓으면서도 자신이 다닌던 병원 환자를 위해 웃는 낯으로 자원 봉사를 하던, 지금은 하늘의 별이 된 청년을 인터뷰 할 수 있었던 건 잊지 못할 행운이었다. 지금은 시련인 코로나 19가 인류의 선물로 바뀌는 순간까지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할 것이다.

강평



정세균

제46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PART 2.



김주우 **SBS** 아나운서

Session 4

겪어본 적 없는 시대의 이코노미

10:50 - 11:25

신우석·유영중

베인 앤드 컴퍼니(Bain & Company) 파트너

* 토크 후 Q&A 시간이 있습니다

서강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SBS** 아나운서 공채 17기로 입사하여 현재 '모닝와이드 3부', '접속! 무비월드', 라디오 '김주우의 팝스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특히 관심이 많아 방송 활동 외에도 유튜브 채널 운영, 집필 및 강연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Session 5

음식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11:25 - 11:55

마크 비트먼

前 뉴욕타임스 음식전문기자, 푸드 칼럼니스트

* 토크 후 Q&A 시간이 있습니다

session 4

겪어본 적 없는 시대의 이코노미

#언택트사회 #일자리 #글로벌이코노미



현대 자본주의 체제 성립 이후 세계 대공황, 금융 위기 등 수차례의 경제 침체기가 있었으나, 현재 코로나 사태와 같이 감염에 따른 생명의 위협으로 인해 기본적 경제활동이 위축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 침체는 전대미문의 사태이다. 나아가 전례 없이 강력한 전염력 및 변이 속성을 고려할 때, 코로나 종식 후 코로나 이전의 세상으로의 회귀 (**back to the normal**)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코로나가 바꾸어 놓은 많은 것들이 새로운 기준 (**new normal**)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SDF2020**에서 베인앤드컴퍼니는 코로나가 바꾸어 놓은 세상, 혹은 앞으로 더욱더 바꾸어 갈 세상을 경영·경제 관점에서 조망해 보고, 이러한 변화가 소비자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특히 향후 언택트 경제가 소비자들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지에 대해 전망해 보고 ‘언택트 시장’ 선점을 위해 기존 대기업들과 신생 스타트업 업체들이 벌이고 있는 경쟁에 대해 살펴본다.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의 ‘직장’에서 벌어지게 될 많은 변화를 전망해 보고, 업무 효율성과 개개인의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변화 방향을 제언한다.

*신우석 · 유영중 파트너에게 궁금한 게 있다면?
접속 프로그램 하단에 있는 채팅 창에 질문을 남겨 주세요.
Q&A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신우석

베인앤드컴퍼니(Bain & Company) 파트너

신우석 파트너는 베인앤드컴퍼니 서울 오피스(한국 지사)에서 금융 부문을 이끌고 있다. 신 파트너는 소비재 및 유통, 헬스케어, 가전제품, 보험, 은행업 부문 등에서 13년 넘게 컨설팅 한 경력을 바탕으로 2016년 베인앤드컴퍼니에 입사했다. 주요 전문 분야는 기업 전략, 사업 모델 전환, 디지털 전환, 조직 개편 등이다.

베인앤드컴퍼니 입사 전에는 유수의 글로벌 컨설팅 업체에서 상무로 근무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슬론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유영중

베인앤드컴퍼니(Bain & Company) 파트너

유영중 파트너는 현재 베인앤드컴퍼니 서울 오피스(한국 지사)에서 디지털 산업 부문을 이끌고 있다.

15년 넘게 컨설팅 한 경력을 바탕으로 2016년 부파트너로 베인앤드컴퍼니에 입사했다. 입사 후 유 파트너는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항공/방산, 자동차,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업계 고객과 작업을 했으며, 핵심 역량 부문으로는 시너지 평가 및 목표 설정, 청사진 및 가치 창출, 사업 실태조사와 에퀴티 스토리(equity story), 사업단위/기업/M&A 전략 등이 대표적이다.

베인앤드컴퍼니 입사 전에는 유수의 글로벌 컨설팅 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시카고대학교 부스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MBA)학위를 취득했다.

session 5

음식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선택 #미래먹거리 #더나은삶



우리가 먹는 음식은 시대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 정책의 결과다. 그렇다면 새로운 생존의 단서를 찾아야 하는 지금, 우리의 먹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 오랜 시간 동안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해온 음식 전문기자 겸 푸드 칼럼니스트 마크 비트먼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먹을지가 결국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식탁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고, 그것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의 시선을 따라 음식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들여다본다.

*마크 비트먼에게 궁금한 게 있다면?
접속 프로그램 하단에 있는 채팅 창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Q&A**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마크 비트먼

前 뉴욕타임스 음식전문기자, 푸드칼럼니스트
컬럼비아대학교 메일먼 공중보건대학원
식품정책특별자문

마크 비트먼은 『모든 것을 요리하는 법』과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6시 전 비건식으로 살 빼고 건강 되찾기(국내미출간)』등 저서 30권을 썼다. 1984년부터 30여년 간 뉴욕타임즈의 음식전문기자, 칼럼니스트, 오피니언 칼럼니스트, 일요일판 수석 논설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비트먼은 미국 CBS산하 케이블채널 쇼타임의 에미상 수상작인 '기후변화: 위기의 시대'를 포함해 방송 프로그램 4개에 출연했다. 이밖에도 미국 NBC 아침 프로그램 '투데이'에 오랫동안 고정 출연했으며, 미국 인기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 쇼'와 '리얼 타임 빌 마어' 뿐 아니라 CBS의 '디시', 미국 공영라디오 NPR의 '올 싱스 컨시더드', '프레시 에어', '모닝 에디션' 등 텔레비전, 라디오, 팟캐스트에 수백 차례 출연한 이력을 자랑한다.

비트먼은 각종 매체에 기고하고 대학과 컨퍼런스에서 수십 차례 강연을 하였다. 특히 2007년에 진행한 테드(Ted) 강연 '우리의 음식은 무엇이 문제일까?'는 조회수 5백만 가까이를 기록했다. 또한 UC버클리대학교 우수 펠로우와 참여과학자모임(UCS) 펠로우를 지내기도 했으며, '미국 요리계의 아카데미상'으로도 불리는 제임스 비어드 재단상을 6차례 수상하고 국제요리전문가협회(IACP) 상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컬럼비아대학교 메일먼공중보건대학원의 식품정책특별자문을 맡고 있으며 '식품, 공중보건 그리고 사회정의'라는 제목의 강연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다. 히티드 잡지의 수석 에디터로도 활동함과 동시에, 책과 텔레비전 시리즈로 나올 예정인 '애니멀 베지터블 정크'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그의 가장 최근 저서로는 데이비드 캐츠 의학박사와 공동 저술한 『어떻게 먹을것인가(국내미출간)』이 있다.

PART 3.

session 6

증강현실이 바꾸는 일터의 미래

#가상공간 #3차원협업 #일터의진화

Session 6

증강현실이 바꾸는 일터의 미래

13:00 – 13:20

이진하

증강현실 플랫폼 ‘스페이셜’ 공동창업자, 최고제품책임자(CPO)

Session 7

움직임의 힘, 불안을 건너다

13:20 – 13:50

켈리 맥고니걸

스탠퍼드대학교 심리학 강사

*토크 후 Q&A 시간이 있습니다

출장이 취소되고 재택근무가 ‘뉴 노멀’이 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일터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본 강연에서는 증강현실 기술로 어디서든 같은 방에 앉아 협업을 하게 해주는 플랫폼 “스페이셜”을 창업하게 된 계기와 과정을 공유하고, 원격으로 뉴욕의 오피스와 무대를 연결하여 협업하는 모습을 직접 시연 한다. 공간과 거리의 제약이 없어지는 미래, 이러한 일터의 변화가 우리의 가치관과 창의성, 그리고 도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논한다.



이진하

증강현실 플랫폼 ‘스페이셜’ 공동창업자,
최고제품책임자(CPO)
MIT 테크놀로지 리뷰 선정 “35세 이하 혁신가 35인”

증강현실을 통해 어디에 있든 함께 일할 수 있는 협업플랫폼인 스페이셜의 공동창업자이자 최고 제품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 자라면서 건축과 예술에 관심이 많았으나, 부모님의 권유로 도쿄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하였다. 이후 공간예술을 기술을 접목시키기 위해 MIT 미디어랩에 진학해 인간과 컴퓨터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손을 직접 넣어 조작하는 컴퓨터 스페이스톱, 만질 수 있는 핀셀 ‘제론’ 등을 만들었다. 이 작업이 화제가 되어 2013년 테드(TED)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강연했다. 이후 삼성전자에 입사하여 TV 스크린을 협업, 데이터,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바꾸며 최연소 그룹장을 역임하였다. 2016년 홀로렌즈를 써보고 증강현실의 상용화가 머지않았다는 생각으로 뉴욕으로 옮긴 후 우버와 인스타그램 창업자 등의 투자를 받아 스페이셜을 설립, 아바타를 통해 가상의 3차원 공간에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협업플랫폼을 출시하였다.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2를 출시하는 키노트에 홀로그램으로 등장해 스페이셜을 시연하기도 했다.

출시 후 포춘 1000대 기업 등의 원격 협업에 사용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는 자가격리와 재택근무로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플랫폼을 무료로 공개했다. 환경에 관심이 많아 불필요한 업무 출장을 홀로그램 회의로 대체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이는 것이 목표이기도 하다. MIT Technology Review에서 선정한 35세 이하의 혁신가 35인, 그리고 세계 경제포럼의 차세대 리더, 패스트컴퍼니가 선정한 혁신하는 세계최고 디자이너 32인, 포브스아시아의 영향력 있는 30세이하 30리스트 등에 선정되었다.

session 7

움직임의 힘, 불안을 건너다

#신체움직임 #변화 #회복탄력성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등으로 모든 활동이 제약을 받고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지금, 많은 이들이 몸과 마음이 모두 움츠러드는 상황을 겪고 있다. 현재의 불안을 건널 열쇠로 '신체의 움직임'에 주목한 학자가 있다. "인간은 움직이는 존재"라고 주장하며, 움직임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힘이라고 말하는 건강심리학자 켈리 맥고니걸. 최근의 심리, 신경과학, 의학 분야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신체 움직임이 주는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이점을 제시한다. 불안을 건너기 위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움직임은 과연 어떤 것일까? 켈리 맥고니걸이 직접 가르쳐주는 움직임을 따라 해보자.

*켈리 맥고니걸 박사에게 궁금한 게 있다면?
접속 프로그램 하단에 있는 채팅 창에 질문을
남겨 주세요. **Q&A**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켈리 맥고니걸

스탠퍼드대학교 심리학 강사

『움직임의 힘』, 『스트레스의 힘』 저자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20인’

켈리 맥고니걸 박사는 심리와 신체의 관계를 연구하는 건강심리학자이자 스탠퍼드 대학교 강사이다. ‘과학적 자기계발’ 분야의 선두주자인 그의 사명은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통찰을 응용해 개인의 웰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를 튼튼히 해줄 실용적 방법을 찾는 것이다.

맥고니걸 박사는 베스트셀러 『스트레스의 힘』, 『왜 나는 항상 결심만 할까?』를 펴낸 작가이며, ‘스트레스를 친구로 만들기’라는 주제로 테드(Ted)에서 진행한 강연은 조회수 2천만을 넘기며 최다 시청 강연 순위에 올랐다.

또한 스탠퍼드 연민과 이타주의 연구교육센터(CCARE)에서 공감, 연민을 강화하는 법을 가르치는 ‘스탠퍼드 연민 배양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며, 이 과정은 현재 세계 곳곳에서 제공되고 있다.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20인’에 이름을 올렸으며 2020년 1월 미국 유명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창간한 ‘오프라 매거진’은 맥고니걸 박사를 “과학적 데이터를 지혜로 바꿨다”고 극찬하며, 획기적인 업적으로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든 인물에게 수여하는 ‘오!선구자’상의 첫 수상자로 선정했다.

맥고니걸 박사의 신간 『움직임의 힘』은 육체적 운동이 어떻게 현대인들의 마음의 병인 우울증, 불안증, 외로움에 강력한 치료제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PART 4.

Session 8

인류세와 팬데믹: 인간 너머의 관심 14:00 – 14:15

박범순
카이스트 인류세연구센터장

Session 9

사회계약을 넘어 자연계약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문명사적 성찰 14:15 – 14:35

김홍종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Session 10

처음 겪는 공기, 다시 찾은 과학: 공기 위기를 살아내기 14:35 – 14:50

전치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Session 11

객석이 사라졌다 14:50 – 15:10

곽승영
SBS 예능본부 책임 프로듀서(CP)
* 진행 중 Q&A 시간이 있습니다

Session 12

도전 없이 변화 없다 15:10 – 15:50

은혁, 신동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
* 토크 후 Q&A 시간이 있습니다



조정식 **SBS** 아나운서

2013년에 **SBS**의 아나운서가 됐다. 처음엔 TV에 내 모습이 나오는게 그저 좋았다. 이후엔 다양한 경험을 하며 일할 수 있다는 게 복이라 생각했다. 지금은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경험과 생각을 들으며 성장함에 행복하다. 이번 포럼에선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교감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인류세와 팬데믹 : 인간 너머의 관점



#인류세 #과학과 질병
#호모수페르스테스(생존인)

세계의 일상을 바꾼 신종 바이러스, 인류의 '숨'을 위협하는 지구 온난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재난과 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앞으로는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홀로세' 이후 인류가 지구환경에 큰 영향을 준 시기를 일컬어 '인류세' 시대, 이제 우리에게 '인간너머'의 관점이 필요하다.



박범순

카이스트 인류세연구센터장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학부에서는 화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는 과학사를 전공했으며, 카이스트에서 역사학적 방법론으로 과학정책의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여러 분야 사이에서 새로운 학문분야가 생성되는 사회문화적 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학문의 융합과정을 경험하고 만들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인류세 연구센터를 설립해, 행성적 차원에서의 위기를 인간중심적 사고를 넘어 자연과 문화가 분리되지 않는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사회계약을 넘어
자연계약으로
: 코로나19에 대한
문명사적 성찰
#바이러스 #비인간의존재
#문명사적전환



'바이러스'라는 작은 미생물이 **2020**년 전 세계를 근본적으로 변화 시켜 가고 있다. 이 격변 속에서 인류는 약 **300**여 년 형성해 온 근대 문명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요청 받고 있다. 그 핵심에는 **17-8** 세기에 제기된 '사회 계약'을 넘어서는 일종의 '자연과의 계약'이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21**세기 사회는 인간들 사이의 문제를 넘어서, 물질, 생명, 그리고 환경의 여러 힘들과의 새로운 계약을 통해 진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비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며, 사회에 대한 어떤 새로운 관념을 형성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집(**eco**)의 두 차원인 경제(**economy**)와 생태(**ecology**)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결합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문명 사적 변동과 마주하고 있다.



김홍중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카이스트 인류세연구센터와 공동연구

『사회학적 파상력』, 『마음의 사회학』,
『눈먼 자들의 국가』 저자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프랑스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은 사회 이론과 문화사회학이다.

학문적 관심의 핵심에 ‘마음’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서 ‘마음’은 주로 집합적 욕망과 믿음의 에너지를 가리킨다. 마음은 힘으로 작용하면서 현실을 만들어가는 동력이다. 바람처럼 인간들을 움직이고, 행위하게 하고, 건설하게 하고, 파괴하게 하는 이 힘의 흐름을 탐구함으로써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를 해명하는 것이 내 사회학의 주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런 이론적 관점으로, 민주화 시대 이후 386 세대를 이끌어간 진정성의 욕망을 분석했고, 21세기 밀레니얼 세대의 생존주의적 욕망을 같은 맥락에서 분석했다.

최근에는 인간들이 구성하는 사회를 넘어서 환경과 비인간의 영역으로 관심이 확장되었다. 인류세, 포스트휴머니즘, 그리고 새로운 미래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탐구를 시도하고 있다.

처음 겪는 공기, 다시 찾은 과학 : 공기 위기를 살아내기



#공기공포 #호흡공동체 #공기와과학

미세먼지, 코로나**19**, 폭염 등 최근 몇 년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것은 ‘공기 재난’ 혹은 ‘공기 위기’다. 일련의 ‘공기 재난’은 언제나 공기를 나눠 마시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에 빠트리고 ‘호흡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한다. 현재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공기 관계’를 설계해야 할까? 여기에는 어떤 과학기술과 실천이 필요할까? 새로운 관점으로 공기에 주목할 때다.



전치형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카이스트 인류세연구센터

『사람의 자리 : 과학의 마음에 닿다』 저자

과학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연구하는 ‘과학기술학’을 전공했다. 인공지능과 로봇 같은 유사-인간 테크놀로지의 등장이 인간 정체성과 인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있다. 이런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대나 두려움이 인간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과도하게 지배하는 데에는 불만이 있다. 근래에는 KAIST 인류세연구센터에 참여하면서 ‘공기풍경’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인간-자연-테크놀로지가 서로 얹혀서 새로운 삶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지구 어디에나 있는 공기이지만 어디 사는 누구인지에 따라 각자 다른 공기를 마시고 살게 되는 데에 과학과 테크놀로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객석이 사라졌다

#랜선콘서트 #뉴택트 #뜻밖의발견



공개 방송, 문화 콘서트, 포럼 등 다양한 포맷의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시청자들을 만나온 방송사도 코로나19로 발상의 전환을 요구 받고 있다. 방송사 최초로 '랜선 콘서트'를 기획·개발해 시청자와 소통을 이어온 **PD**가 있다. **SBS** 창사 30주년! 새로운 도전으로 언택트 시대, '뉴택트'를 발견한 제작자와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나눠본다.

*곽승영 **PD**에게 궁금한 게 있다면?
접속 프로그램 하단에 있는 채팅 창을 통해 질문해주세요.



곽승영

SBS 예능본부 책임 프로듀서(CP)

쌍방소통형 언택트 공연 연출 포맷 기획/개발

<트롯신이 떴다>, <미운우리새끼>,

<스타킹> 등 연출

또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16년 전 <X맨>을 처음 시작했을 때, 유재석, 강호동의 현란한 재능을 보고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편집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긴장하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야심만만>의 출연자들이 자신을 내려놓고, 허심탄회한 토크들을 쏟아냈을 때, ‘잘 만들 수 있겠다’는 설렘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미운우리새끼> 첫 녹화 날, 엄마들의 거침없는 토크에 당황하는 국민MC 신동엽을 보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트롯신이 떴다> 베트남 첫 촬영 날, 노래 부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가수들을 보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공연을 해야 하는데, 객석이 사라졌다.

공연 첫 날, 랜선을 통해 들리는 수백명의 합성 소리를 듣고 또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이거 뭐지?’

도전 없이 변화 없다

NO CHALLENGE? NO CHANGE!

#세계최초 #언택트콘서트 #무대의진화



한 공간에서 팬들과 만나고 호흡해온 무대 위 아티스트들은 비대면 시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티스트로서 비욘드 더 슈퍼쇼의 연출에까지 참여해온 슈퍼주니어의 멤버 은혁, 신동의 이야기를 아티스트의 관점에서 들어본다. 세계 최초 온라인 전용 유료콘서트 ‘비욘드 라이브’를 기획하고 무대에 직접 오른 새로운 도전은 그들에게 어떤 경험이 되었을까? 데뷔 16년 차! 아날로그부터 디지털, 온라인 공연시대까지, 앞선 변화를 통해 끊임없이 진화해온 그들의 진짜 무대 이야기가 시작된다.

*토크 후 Q&A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은혁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2000년 SM Casting System을 통해 캐스팅 후, 6년간의 연습 기간을 거쳐 2005년 11월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로 데뷔했다. 가수, 연기자, MC 등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다운 재능을 지닌 이들로 구성된 슈퍼주니어는 2009년 발표한 정규 3집 ‘SORRY, SORRY’ (쏘리쏘리)로 글로벌적인 메가 히트를 기록하며, 현재까지 꾸준한 앨범 발매와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뮤지컬 등 전방위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후 슈퍼주니어는 데뷔이래 한국 아티스트 최초 필리핀 앨범 판매량 골드 기록, 대만 온라인 음악 사이트 'KKBOX' 한국 앨범 차트에서 148주간 최장 1위, 한국 그룹 최초 프랑스 단독 콘서트 개최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특별 강연 등 셀 수 없이 많은 ‘최초’의 기록을 남겨왔다.

더불어 2008년 서울에서 막을 올린 ‘SUPER SHOW’로 세계 각국 220만 명 이상의 관객들과 소통하며 슈퍼주니어만의 독보적인 공연 브랜드를 구축했다. 특히 지난 5월 개최한 비대면 온라인 콘서트 ‘Beyond the SUPER SHOW’는 슈퍼주니어의 강렬한 퍼포먼스에 각종 첨단 기술을 접목한 무대로, 전 세계 12만 3천 시청자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그 중 멤버 은혁은 슈퍼주니어와 슈퍼주니어-D&E 유닛 활동을 병행하며, 공연 연출가로서도 입지를 넓혀오고 있다. 슈퍼주니어의 오프라인 콘서트 ‘슈퍼쇼 7’, ‘슈퍼쇼 7S’, ‘슈퍼쇼 8’과 이번 온라인 공연 ‘Beyond the SUPER SHOW’를 직접 연출하고, 3만여 명 관객 규모로 진행된 중국 국민 아이돌 TFBOYS의 단독 콘서트에서 총연출을 맡아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신동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2005년 제9회 SM 청소년 베스트 선발대회 개그짱 1위, 전체 대상을 수상하고, 2005년 11월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로 데뷔했다. 가수, 연기자, MC 등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만능 엔터테이너'다운 재능을 지닌 이들로 구성된 슈퍼주니어는 2009년 발표한 정규 3집 'SORRY, SORRY' (쏘리쏘리)로 글로벌 한 메가 히트를 기록하며, 현재까지 꾸준한 앨범 발매와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뮤지컬 등 전방위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후 슈퍼주니어는 데뷔이래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필리핀 앨범 판매량 골드 기록, 대만 온라인 음악 사이트 'KKBOX' 한국 앨범 차트에서 148주간 최장 1위, 한국 그룹 최초 프랑스 단독 콘서트 개최와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특별 강연 등 셀 수 없이 많은 '최초'의 기록을 남겨왔다.

더불어 2008년 서울에서 막을 올린 'SUPER SHOW'로 세계 각국 220만 명 이상의 관객들과 소통하며 슈퍼주니어만의 독보적인 공연 브랜드를 구축했다. 특히 지난 5월 개최한 비대면 온라인 콘서트 'Beyond the SUPER SHOW'는 슈퍼주니어의 강렬한 퍼포먼스에 각종 첨단 기술을 접목한 무대로, 전세계 12만 3천 시청자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그 가운데 멤버 신동은 넘치는 끼와 입담으로 다채로운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등의 MC로 활약했다. 최근에는 영상 디렉터로 활동하며 레드벨벳의 '환생', 박재정 X NCT 마크의 '레모네이드 러브', 우주겁쟁이의 '후유증', 셀럽파이브의 '셀럽파이브(셀럽이 되고 싶어)' 등 다수의 뮤직비디오를 연출해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PART 5.

Session 1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교와 도시의 미래 16:00 – 16:30

유현준

홍익대 도시건축학과 교수, 건축가

*토크 후 Q&A 시간이 있습니다



Session 14

도시 경제, 도넛에서 답을 찾다 16:30 – 16:45

일렉트라 쿠룰피

서클 이코노미 선임 도시 전략가

Session 15

우리 동네, 삶의 중심으로 진입하다 16:45 – 17:00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소원 SBS 아나운서

지상파 방송사의 일원으로 25년을 넘겨 일했다. 현재는 몇 년째 뉴스와 영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정도 경력이면 웬만한 사안은 어지간히 넘길 만한데, 올해는 솔직히 어지럽다. 행성을 뒤덮은 팬데믹이라니.

Session 16

페르마타:멈춤 17:00 – 17:55

이대형 에이치존 아트디렉터

김영선 레코딩 아티스트

이 완 현대미술가

최우정 작곡가

한석현 설치미술가

뉴스가 재난 영화 같고, 공포 영화가 시사프로그램으로 보이는 날들이 이어진다.

미디어는 세상을 비추는 거울이자 변화를 이끄는 선봉이라고들 한다. 종사자로서 겸연쩍다. 하지만, 아찔한 속도로, 앞길은커녕 어디쯤 달리는지도 알기 힘든 지금, 할 일은 해야겠다. 있는 힘껏 마이크를 세우고 객석을 연결한다. 이럴 때 쓰려고 외워 둔 근사한 영화 대사를 되뇌어본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교와 도시의 미래

#공간의재정의 #미래학교 #도시의미래



COVID19는 세상을 바꿀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 원격수업으로 많은 학생이 한 장소에 모일 필요가 없어졌다. 미래의 학교는 지금처럼 큰 규모를 유지해야 할까? 전 세계가 이제 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 서구에서 만든 학교 시스템을 모방하기 급급했던 어른 세대의 삶을 반복할 것인지, 새로운 학교 시스템을 만들어 새 시대를 열 것인지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공간이 바뀌면 관점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진다. 지금 우리가 살아갈 이야기를 공간의 관점에서 풀어야 하는 이유이다. 공간의 변화가 가져올 관계의 변화에서부터 도시의 변화까지...알면 알수록 쓸모 있는, 그의 상상은 이제 현실로 이어진다.

*유현준 교수에게 궁금한 게 있다면?
접속 프로그램 하단에 있는 채팅 창에 질문을 남겨 주세요.
Q&A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유현준

홍익대 도시건축학과 교수, 건축가

『공간이 만든 공간』,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등 저자

유현준은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의 교수 겸 유현준건축사사무소, 스페이스컨설팅그룹의 대표 건축사이다. 연세대학교에서 학사를, MIT에서 건축설계석사(M.Arch)를 마쳤으며, 하버드대학교 건축설계 석사 우등졸업(M.Arch with Distinction)을 하였다. 이후 리차드 마이어 사무소(Richard Meier & Partners Architects)에서 실무 경력을 쌓았다.

주요 작품으로는 머그학동(Mug Hakdong), 암해도 복지회관(The Void) 등이 있으며, Chicago Athenaeum Architecture Award, German Design Award 등 30여차례가 넘는 국내외 건축상을 수상하였다. tvN 알쓸신잡 시즌2, KBS 명견만리 등 다양한 방송 출연과 『공간이 만든 공간』, 『어디서 살 것인가』,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모더니즘: 동서양 문화의 하이브리드』 등 7권의 저서가 있다

도시 경제, 도넛에서 답을 찾다



#도넛경제 #선진국신화의붕괴
#전혀새로운같이살기

개인에게도 좋고 지구에도 좋은 지속 가능한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GDP 중심의 ‘성장 중독’ 모델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 모델 시스템을 도시에 적용해보겠다는 실험이 세계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곳 중 하나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 시는 코로나19 이후 기존과는 다른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변화를 위해, 영국의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 ‘도넛 경제 모델’을 적용해보기로 했다. ‘도넛’이 어떻게 도시를 바꿀 수 있느냐고? 암스테르담의 도시를 직접 디자인하고 있는 도시설계 전략가를 통해 실제 사례를 들어본다.



일렉트라 쿨롬피

서클 이코노미 선임 도시 전략가
‘암스테르담 도넛 경제모델’ 디자인

일렉트라 쿨롬피는 사회적 기업 ‘서클이코노미’의 선임도시전략관으로, 도시의 사회정의와 환경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전략을 기획하는 도시번영팀을 이끌고 있다. 그의 팀에서는 영국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의 ‘도넛 경제 모델’을 도시에 맞게 축소하여 혁신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쿨롬피는 ‘서클이코노미’에서 서클시티스캔팀도 이끌었으며, 유럽과 미국, 아시아의 여러 도시와 작업하며 순환 경제의 전략과 시범사업의 도입을 돋고 있다.

서클이노코미에 입사 전에는 베를린공대에서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주제로 연구했으며,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건물성능연구소에서 유럽연합의 환경조형정책을 주제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또한 세계적인 건축 회사 아ulp의 암스테르담 지사에서 지속가능성과 건물 관련 엔지니어로 근무하기도 했다.

사람을 좋아하고, 여럿이서 창의적으로 일하기를 좋아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에 관심이 많은 쿨롬피는 여러 국가에서 도시 변화에 앞장서온 사람들이 함께 과정을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고안하기도 했다. 또한 다수의 컨퍼런스, 대학교, 국제 행사 등에서 도시의 번영과 사회에 대해 강연하고 발표하고 있다.

우리 동네, 삶의 중심으로 진입하다



#동네의재발견 #로컬택트
#생활권도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람들의 활동 반경이 줄면서 우리 동네 곳곳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생활권 중심 로컬’의 부상이다. 오랜 시간 로컬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발견해온 학자는 ‘글목’에 주목해 ‘생활권 경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한다. 새로운 기회와 라이프 스타일이 되고 있는 로컬의 가치를 국내외 여러 사례를 통해 들여다본다.



모종린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인문학,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다』,
『골목길 자본론』 저자

대학에서 국제정치경제, 세계화 등을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기업과 인재를 끌어들이는 전 세계 매력적인 도시들의 비밀을 엿볼 수 있었다. 도시 고유의 매력을 어떻게 라이프스타일로 발전시키는가에 지역의 미래가 달려 있으며, 특히 골목길이 도시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신도시 문화로 대표되는 기존의 한국 도시문화에서 그동안 골목길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주체로 나설 기회가 적었으나, 최근 서울 등 주요 대도시의 골목 문화가 살아나면서 정부와 지자체도 골목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대한민국 도시의 미래가 매력적인 골목길 문화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개인적인 경험을 동원하여 『골목길 자본론』을 집필했다. 사람과 돈이 모이는 도시의 비밀을 밝혀낸 이 콘텐츠는 출간 전 카카오 브런치에 연재되며 SNS 공유만 1만5천건에 달할 정도로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모종린 교수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로 코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스탠퍼드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텍사스 오스틴대 조교수, 스탠퍼드 대 후버연구소 연구위원, 연세대 언더우드국제대학장, 국제처장, 국제학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 『인문학,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다』, 『골목길 자본론』, 『라이프스타일 도시』, 『작은 도시 큰 기업』 등이 있다.

페르마타 : 멈춤

#예술가 #집단지성 #성찰과상상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예술가들의 상상력에서 이 혼돈을 정리할 열쇠를, 생존의 단서를 찾을 수는 없을까?

SDF2020은 각 부분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는 예술가들과 집단지성을 모아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팀명은 ‘페르마타(Fermata)’: ‘악곡의 표정에 변화를 주기 위하여 곡의 중간이나 마지막 등에서 박자의 운동을 잠시 늦추거나 멈추도록 지시하는 표’. 모두가 같은 속도, 같은 방향을 향해 뛰어가고 있을 때 누군가는 숨을 고르며 사회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SDF**와 아트 프로젝트 ‘페르마타’는 “소리”를 매개로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과 상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대형

에이치존 아트디렉터

‘Connect, BTS’ 기획·총괄

백남준 문화재단 이사

2017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예술감독

큐레이터 이대형은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큐레이팅의 영역을 환경, 커뮤니티, 기술, 미래 등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그는 2017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 ‘카운터밸런스’를 통해 얻은 기부금을 모아 베니스 환경단체 We Are Here Venice에 기부하는 캠페인으로 발전시켰다.

2013년부터 19년까지 현대자동차 아트디렉터로서 국립현대미술관, 테이트 모던, LACMA, 블룸버그, 아트유니온, 블루 프라이즈, 현대 테이트 리서치 센터 등의 미술관, 큐레이터, 작가, 평론가 등과 다양한 파트너십 및 프로모션 플랫폼을 기획하였다. 최근에는 ‘CONNECT, BTS’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총괄 기획하며, 런던, 베를린, 서울, 부에노스아이레스, 뉴욕 등 5개 도시에서 22명의 예술가들과 BTS의 음악철학을 재해석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론칭 했다. 또한 국내 큐레이터 10인과 해외 큐레이터 10인을 연결하는 글로벌 리서치 네트워크 프로그램 ‘코리아 리서치 팔로우 10x10’를 이끌고 있다.



김영선

레코딩 아티스트

아트콜렉티브 ‘지구생각’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대학원 음악과 교수

어린시절 구세군 악대에서 E♭ 알토 혼을 배웠고 12월 크리스마스 때면 명동 거리로 나가 형, 누나들과 함께 꽁꽁 얼어붙은 손가락과 악기를 입김으로 녹이며 크리스마스 캐롤을 연주했다.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자선냄비에 기부하는 손길들을 보면 즐겁기만 했다. 국민학교 때 프란츠 카프카, 헤르만 헤세, 알베르 카뮈, 장 자크 루소, 파브르의 곤충기를 읽으며 지냈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집 앞 운동장에 있는 약 400년 된 은행나무와의 대화가 항상 위안이 되었다. 이 시기에 자리잡은 정서가 곧 나이 50이 되어가는 지금까지의 내 모습이다.

고 1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악기소리에 미쳐 그 악기를 찾아 음악을 전공하였으나 음대를 졸업할 때까지도 어떤 음악이 좋은 음악, 소위 예술적인 음악인지 구분하지 못했다. 예술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혼자만의 예술 여정을 하던 중 소리를 예술로 다루는 학문분야인 음악 프로덕션과 음향공학을 만나 음악 프로듀싱과 레코딩, 그리고 소리를 연구하고 작품으로 만나는 일을 하며 아직도 여정 중에 있다.

대표작으로 음반 ‘Project21AND’(2집-6집), 발표작 ‘planted’(Ars Electronica, Linz, Austria, 2014,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원) 등이 있고 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아트콜렉티브 ‘지구생각’ : 김영일 프로듀서, 김영선 레코딩 아티스트, 김민아 투마이스터, 정미녕 큐레이터가 참여하는 ‘지구생각’은 의식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생멸과 유무, 시간과 역사의 음향경을 중심으로 모인 아티스트 콜렉티브이다. ‘지구생각’이라는 팀명은 이번 SDF 참여를 계기로 만들었다. 한국 경주를 기점으로 과거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고고학적 사운드를 수록하고 수 천년의 역사와 자연의 산물이 공존하는 ‘현재’와 미래를 이어나가는 소리지도를 그려나간다. 일상에서 놓치고 있는 소리를 통해 감각을 일깨우고 탈 물질적 사고를 발전시켜 삶을 예술로 만들어가고자 한다.



이완

현대미술가

2017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대표 작가

제26회 김세중 청년조각상

제1회 삼성미술관 리움

‘아트 스펙트럼 작가상’ 수상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동국대학교에서 조각을 전공했다. 2014년 삼성미술관 리움이 개최한 제1회 아트스펙트럼에서 작가상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 제10회 광주비엔날레 참여, 2015년 김세중 청년조각상을 수상하였고 2017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대표작가로 선정되었다. 이완의 대표작으로는 작가가 최초의 생산자가 되어 아시아 10여개국을 돌아다니며 한 끼의 아침식사를 만드는 메이드인 시리즈와 전세계 1200명을 인터뷰하고 고안해낸 공식을 통해 각 개인의 고유한 삶의 속도를 시계로 만든 Proper time 등이 있다.

2019년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재단 모이나 브랜드와 협업하여 시그니처 핸드백 제작에 참여 하였고 여러 국가에서 순회 전시하였다.

이완의 작업은 비디오다큐멘터리, 설치, 조각, 사진 미디어테크놀로지 등 다양한 장르로 확장하고 있으며 자본주의 시스템, 역사, 정치, 문화 등 한 개인의 삶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등을 탐구한다. 현재 유니온아트페어 공동창업자 및 공동대표, 백남준 문화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루이비통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청주시립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최우정

작곡가, 서울대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

前 Ensemble TIMF 예술감독

대표작 : 오페라 <1945>, 뮤지컬 <광주>,

음악극 <적로>

바이올린으로 음악을 시작해 작곡으로 넘어간 후, 다시 연극으로 갔다가 그 경험을 모아 오페라, 뮤지컬, 음악극 등을 주력 분야로 활동하며 시각예술 분야와도 협업해 왔다. 한편, 통영국제음악제 초기부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동시에 음악제 상주단체인 TIMF양상을 예술감독으로서 국내외 수많은 작곡가, 단체, 행사 등과 연계하여 현대음악 발전에 힘써 왔다. 최근에는 종합적이고 열린 개념인 “오페라”를 21세기 첨예한 이슈들과 연계해 새롭게 창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때 키워드는 미디어. 즉 미디어로서의 오페라를 통해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인간과 예술의 관계를 탐구해 보려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수상. 암스테르담 가우데아무스 작곡 콩쿠르, 맨체스터 세계현대음악제 입선. 동아콩쿠르 작곡부문 1위.

주요 작품

오페라: '1945', '달이 물로 걸어오듯', '연서'

뮤지컬: '광주', '오플리어', '형산강에는 용이 산다', '궁리', 'Happy Prince'

음악극: '적로', 'Birth', 'Francisca', 'Rose', 'Hebrew Melodies'

Multimedia Performances: 'Mr. Q', '막계동에서 바흐를 연주하라',

'Replica: Echo et Narcisse'

기타: '추선', 피아노를 위한 전주곡집 등



한석현

설치미술가

2020 강원키즈트리엔날레 참여작가

2019 <Das Dritte Land 제3의 자연>

(베를린 쿨투어포룸)

2016 <Megacities Asia>

미국 보스턴 미술관 기획전 등

홍익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개인전 Pumpkins in Berlin, A.D.2016(2017), Origins(2016), 형광초록(2015) 및 기획전 카라치비엔날레(2017), '표준자연/Quality Control' (2016) 등 다수의 전시를 선보이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해왔으며, 2016년 3월에는 미국 보스턴미술관(Museum of Fine Art, Boston) 기획전 Megacities Asia (2016)에 참석했다. 2016년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선정한 베를린의 대표적인 국제 아티스트 레지던스 베타니엔에 참여하였다. 현재 베를린과 서울을 오가며 활동 중이다.

최근의 관심사는 현대미술과 인공정원 그리고 식물공장에 관한 관심을 주제로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식량과 경관을 목적으로 식물을 재배하면서 고안되었던 수많은 방법들과 현대에 이르러 사물의 표준으로 불려지는 ISO(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 대한 리서치를 기반으로 유기체가 표준화되면서 겪게 되는 현상들을 주목하고 있다.

2018년 6월 미국 Idaho Botanical garden에 Reverse-Rebirth project, 9월 일본 가나자와의 21세기 미술관이 주최하는 'Alterling Home' 전시에서 현대의 인공정원을 설치했다. 2019년 베를린 식물원 Berlin Botanische Garten과 협업한 'Das Dritte Land' 정원설치 작품을 진행했다.

(2015년 Glenfiddich 위스키의 후원으로 스코틀랜드에 설치한 Reverse-Rebirth project: Antlers작품은 100년의 시간 동안 작품과 식물이 영키며 변해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2020 강원키즈트리엔날레 대표 참여작가로도 활동 중이다.



SDF의 지난 1년

SDF 다이어리 (매주 수요일, SDF가 발송하는 뉴스레터)

올해 SDF는 뉴스레터 정기 발송을 시작했습니다. 달라지는 세상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화두를 새로운 관점에서,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기획된 연중 소통 채널입니다. 5월 13일 Ep1. 학학학학학교에 안갔다 를 첫 편으로 매주 수요일 정기 발송을 시작한 SDF다이어리는 지금까지 (10월 말 기준) 총 25편이 발송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등하굣길이 사라진 학교, 출·퇴근 길이 사라진 회사, 언택트 공연 문화, 언택트 노동자들의 안전한 노동권,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위기 상존 시대 인류의 생활 방식 등 팬데믹 이후 겪어본 적 없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주목했습니다.

나아가 ‘새로운 생존의 조건’을 찾아 나선 각 분야의 이야기를 전하고 SDF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고민을 통해 SDF의 세계관을 연중 공유했습니다. SDF다이어리는 SDF공식홈페이지(www.sdf.or.kr)에서 구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0.08.12

Ep.14 전현변과 기후위기

SDF Diary

겪어본 적 없는 이야기 :

“There Is no Plan B” 눈 앞의 기후위기



기후변화와 바이러스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룬
<Ep.14 “There is no Plan B” 눈 앞의 기후위기>

Insights

더 나은 미래로 위한 ‘통찰’

사명으로 버틴 6개월, 코로나19 최전선의 바람은?



의료진을 위한 ‘공정하고 정당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다룬
<Ep.11 당신의 영웅은 안전한가요?>

Social Labs

사회적 담론 미디어를 활용한 실험과 시도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관련해 다룬
<Ep4. 어서와, 재택은 처음이지?>

Insights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생존'

'거리두기', 멈추지 마오



사회적 거리두기와 '코로나 봄이웃'에 대해 다룬
<Ep16. 그 '거리'를 지켜줘>

Social Labs

사회적 담론 미디어를 활용한 '생존과 시도'

택배 없는 날, 처음이 아니었다고?



프로젝트 '페르마타' 팀의
안전한 노동권에 대해 다룬
<Ep.15 언택트와 피땀눈물>

SDF Diary

Fermata:

술고르기, 그치고 ART



코로나 이후 언택트 노동자들의 SDF2020
아트 작업 과정 영상을 공유한
<Ep.17 Fermata: 술고르기, 그리고 ART>

예술가들의 집단지성 SDF X ART

팬데믹 이후 '생존의 단서'를 예술가들의 상상력에서 찾을 수는 없을까? SDF팀은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예술가들의 집단지성에서 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CONNECT, BTS>를 총괄 기획하여 세계적 관심을 모은 이대형 아트 디렉터를 중심으로 각 분야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는 예술가들이 모여 SDF팀과 연중 아트 콜라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트 프로젝트 팀 명은 <페르마타>. SDF팀은 다섯 예술가들이 나눈 대화와 공동 작업 과정을 영상으로 꼼꼼히 기록해 사전 영상을 제작, SDF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유했습니다.

최종 완성 작품은 10월 30일 SDF 예술가 세션에서 첫 공개됩니다. 분야도, 세계관도 다른 예술가들이 소리, 그리고 나무를 매개로 제공하는 성찰과 상상의 기회를 SDF2020에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SDF와 연중 아트 콜라보 프로젝트를 진행한 <페르마타> 팀

SDF 2020 연사 명단

곽승영 / **SBS** 예능본부 책임 프로듀서(CP)

김영선 / 레코딩 아티스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대학원 음악과 교수

김홍중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마크 비트먼 / 前 뉴욕타임스 음식전문기자, 푸드칼럼니스트

모종린 /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박범순 / 카이스트 인류세연구센터장

배영 / 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신동 /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신우석 / 베인 앤드 컴퍼니 파트너

유명순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유발 노아 하라리 /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유영중 / 베인 앤드 컴퍼니 파트너

유현준 / 홍익대 도시건축학과 교수, 건축가

은혁 /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이대형 / 에이치존 아트디렉터

이완 / 현대미술가

이진하 / 증강현실 플랫폼 '스페이셜' 공동창업자

일렉트라 쿨룸피 / 서클 이코노미 선임 도시 전략가

전치형 /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조동찬 / **SBS** 의학전문기자

조원광 / 포항공과대학교 사회문화데이터사이언스 연구소 연구교수

최우정 / 작곡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

켈리 맥고니걸 / 스텐퍼드대학교 심리학 강사

한석현 / 설치미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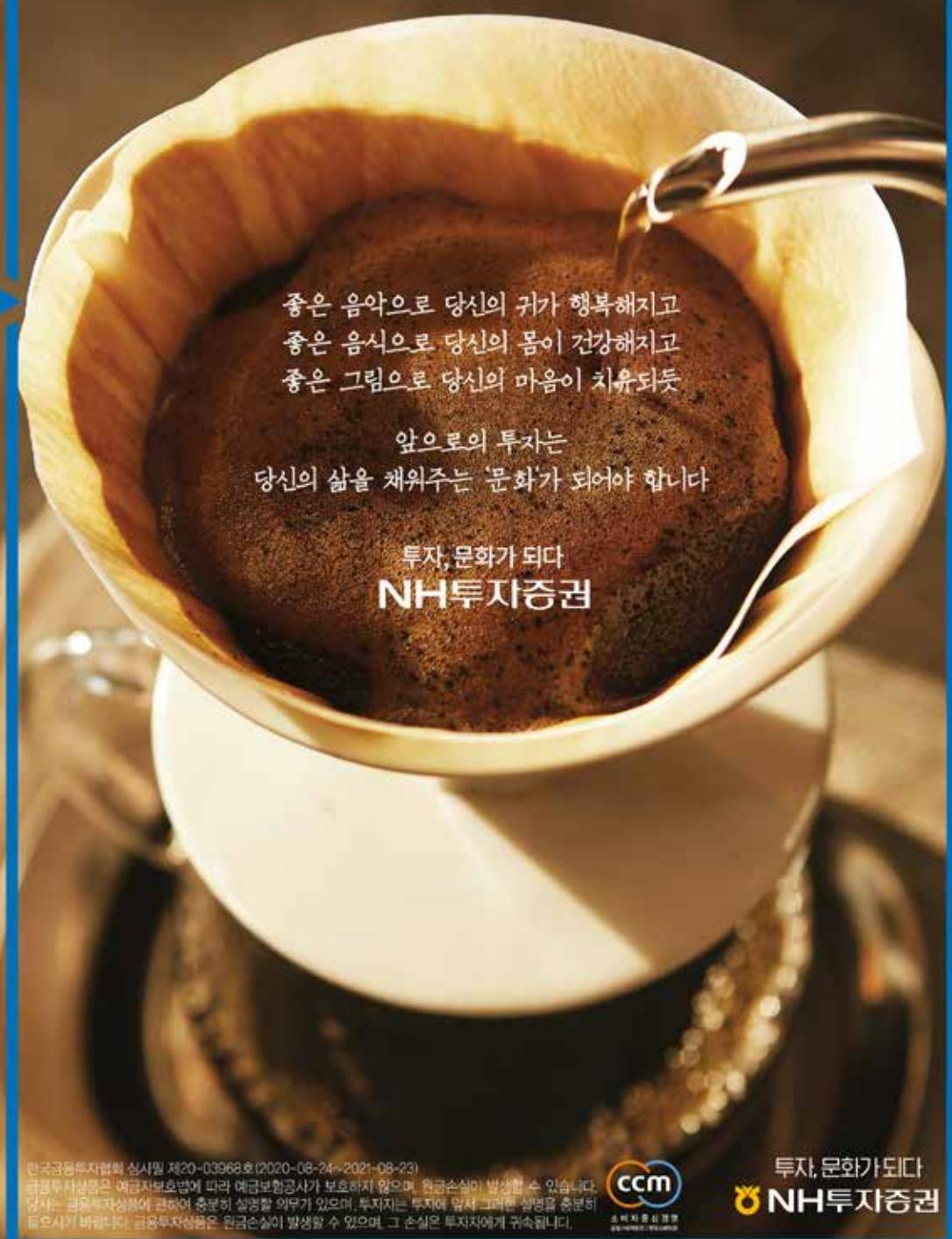
김소원 **SBS** 아나운서

김주우 **SBS** 아나운서

김현우 **SBS** 기자 / **8뉴스** 앵커

조정식 **SBS** 아나운서

최혜림 **SBS** 아나운서 / **8뉴스** 앵커



방방곡곡 좋은 공장들을 발견하는 꿈

최고의 제품을 위해 묵은 실 하나도 허락하지 않고
40년간 한길만 걸어온 장인이 만든 양말 한켤레
뛰어난 품질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공장들과
소비자들을 직접 이어주고 싶었던 사회적기업이
'H-온드림 창업 오디션'을 만나 그 꿈을 키워갑니다



QR코드를 스캔하고
더 많은 H-온드림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더 소중해진 홈 Life is Good

집에서 보내는 일상이
더욱 소중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홈 Life가
더 건강하고
더 즐겁고
더 편리할 수 있도록

LG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HYUNDAI
MOTOR GROUP

'H-온드림 창업 오디션'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입니다

자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사람의 힘만으로 불가능한 일이 있기에

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기에

두산은 원격으로 제어하는 무인굴삭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술

지금은 사람을 돋는 기술이지만

미래엔 사람의 생명을 지켜줄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두산은 시장점유율을 세계 1위의
소형건설장비와 원격제어 첨단
무인굴삭기 개발로 지구와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화는 한화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인간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한 솔루션이 내일의 지구에도 기여할 수 있는가.
우리가 개발하는 기술들이 내일의 대한민국도 이끌어갈 경쟁력이 있는가.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 내일의 세대도 함께 커나갈 수 있는가.
지난 68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한화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해 끊임없는 질문과 해법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건강한 일상으로 가는 길

롯데가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순간을 같이 나누고, 같이 성장하는 당신의 인생과 함께 가는 좋은 친구



함께 가는 친구, 롯데

가족은 I am your Energy

아빠의 귀가 시간이 빨라졌다
누나의 잔소리가 늘었다
형과 게임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엄마의 웃음소리는 더 커졌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건,
어렵고 힘든 이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 있다는 것

어려울수록 힘이 되는 가족,
우리 가족은 나의 에너지다



제목 : 우리 가족

여러분 흐느낌 속에서도 함께 마지막면
반드시 알게될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 가족은 고민나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끌어 주는
다음과 같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아이의 에너지다

세상 모든 것은, 누군가의 에너지다

I am
Your
Energy

마음톡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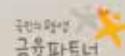
GS 칼텍스는 2013년부터 아이들의
자아와 사회성 형성을 위해 '마음톡톡'
집단예술체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GS 칼텍스

V I V E S T U D I O S

very immersive virtual reality

www.vivestudios.com



세상을 바꾸는 금융

오늘의 안심이
내일로 이어지도록
내일의 희망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도록
KB금융의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있어
작은 일도 큰일도 함께 지켜주니
일상도, 일생도 든든합니다

오늘의 안심부터
내일의 희망까지

보험도 역시 KB



KB손해보험 | 푸르덴셜생명 | KB생명보험 | KB국민은행

KB증권 | KB국민카드 | KB자산운용 | KB캐피탈 | KB부동산신탁 | KB카카은행 | KB인베스트먼트 | KB캐피탈시스템 | KB신原来是

* KB금융그룹

PERFORMANCE ART

**SYVA** COLINEAR SOURCE

Syva is a new breed of speaker, blending our groundbreaking line-source heritage with plug-and-play simplicity and an elegant design. 142 dB, 35 meters of throw, 140° horizontal coverage. Down to 35 Hz. Syva gives you peerless power and performance. Learn more about Syva at laacoustics.com and experience our immersive sound solutions at lisa-music.com.



**플라스틱,
지구와 공존하다**

LG화학은
유한한 자연을 위한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을
개발합니다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을 연구하는
LG화학 석유화학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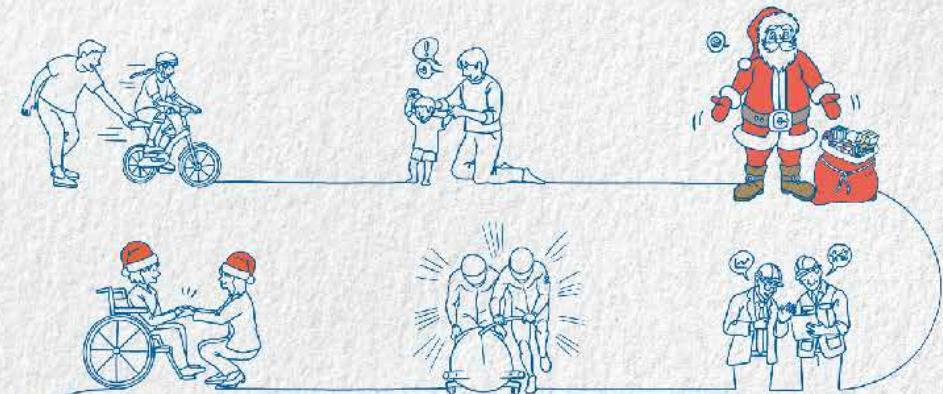
(주)클라우시스 www.klausys.com
서울시 마포구 토청로 37길 49, 3층

T.02-540-7101 | F.02-540-7102 | E. sales@klausys.com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클린 모빌리티 시대를 열다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남겨줄 수 있도록
공해 없이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달릴수록 지구를 더 깨끗하게 하고, 적은 에너지로 더 멀리 움직이는 기술까지
현대모비스는 미래 환경을 위해 모빌리티가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연구합니다

모빌리티 세계를 넓히다
현대모비스



기업, 시민이 되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며 성장해 온 소중한 한 해의 시간들
포스코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살아가는 당신처럼 포스코가 기업시민이 되어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

Power of  with
posco



더 넓은 세계로
KT&G가 질주합니다

놓았는 도전과 학신으로 KT&G가
글로벌 TOP4를 향해 나아갑니다



상상을 나누다 **KT&G**

지불결제 종합솔루션

NICE CHECK

NICE 정보통신은
안전하고, 신속 · 정확한 지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융 VAN
서비스



- 신용/체크/직불카드 승인 및 매입청구서비스
- 현금영수증 거래 승인 서비스
- 전자상품권 및 멤버십서비스
- 카드조회단말기 및 POS 개발 / 공급
- 매출전표 공급 및 수거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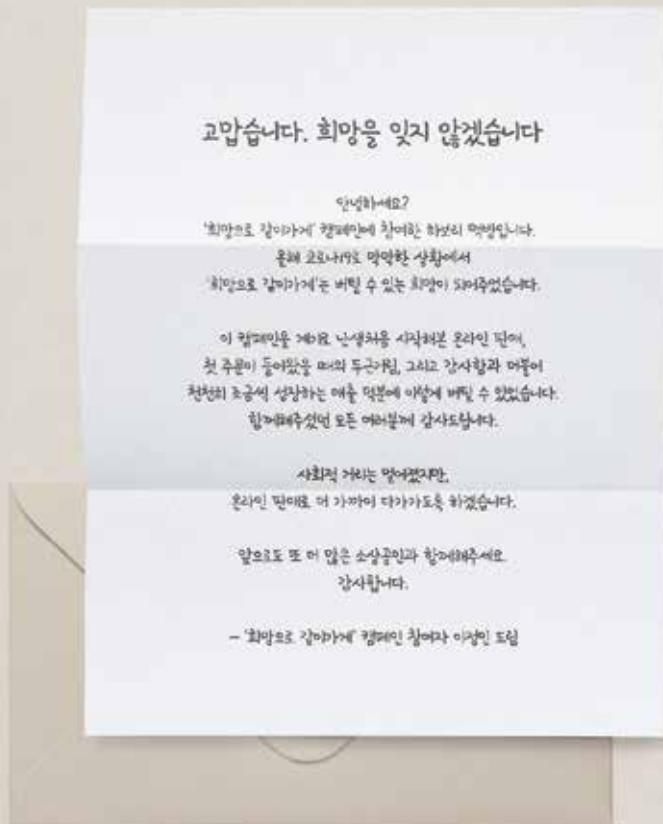


NICE 정보통신(주)

NICE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7, NICE 1사옥
대표전화 : 02-2187-2700
홈페이지 : www.nicevan.co.kr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Hope.Togther.



안녕하세요?
'희망으로 갈아가게' 캠페인에 참여하는 여러분께 역별입니다.
온라인 코너나카드를 마련한 상황에서
희망으로 갈아가게는 빠릴 수 있는 희망이 되어줄었습니다.

이 일회용을 계세요. 난생처음 온라인 단체 첫 주문이 들어있을 때의 두근거림, 그리고 갑사랑과 여름이 천천히 조금씩 성장하는 애들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주었던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온라인 판매로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더 많은 소상공인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희망으로 갈아가게' 캠페인 참여자 이정인 드림

'희망으로 갈아가게'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소상공인분들을 응원합니다

동산·백양모간·케이비드바이오·모온하수공방·부각마을·제이에스·119파크·동동·도산도암·치광도·허브면초이·기운찬·덕포식육성·김자이오·한나서울·한방궁행마한경·하늘잇끼피랩·하보리미룸·제이비그린·마리아리학원·새마직·모성맛집·간디이음·김화여고·고후니·비글다리식당·한우동갈장·한기원·시광기름집·유화컴퍼니·메밀꽃이암감·모이엔파·비드풀리얼·이번화이·와이에이지디엔·청난바은·NIT·진한치과Lowes·하티드·프롬요·파격당·정선재고·자연대로·모트리카·디모멘트·대종수수맛집·금래당·해마루·토마토53·달콤증정·후대미스

대한민국 소상공인분들이 보다 쉽게 온라인 마켓에 진출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마켓 입점 기관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1강_온라인 판촉 시장 준비편
2강_상품선정 및 출영 편
3강_운영 및 관리 편
* 한강미디어 그룹 제공으로는 접속자 대로로 접속 가능합니다.



목도 등도 아파?



바디프랜드
풀스토리가 궁금하다면?

목 추간판(디스크) 탈출증 · 퇴행성 협착증
치료 목적을 위한 견인

바디프랜드 팬텀 메디컬

월 렌탈료 : 29,500원 (59개월 약정)
총 렌탈금액 : 5,870,500원 / 소비자 판매가격 : 5,800,000원

그럼, 팬텀 메디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알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월 렌탈료는 59개월 약정, 250만원 선납금 및 체锈카드(바디프랜드 우리카드) 전월 실적 100만원 이용 협약 시 기준입니다.

* 총 렌탈금액은 59개월 약정 기준이며 선납금과 체锈카드 혜택은 미적용된 금액입니다. * 설치회수설비(20만원)는 기업 사내에는 면제되나 중도解지 시 별도로 부과됩니다.

Visionaries of SDF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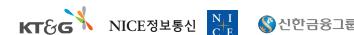
BAE Young Mark BITTMAN	Professor, Division of Humanities and Sciences, POSTECH American food journalist, former columnist for <i>The New York Times</i>
CHO Dong-Chan CHOE Uzong	SBS medical Correspondent, Neurosurgeon Composer, Professor of Composi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usic
EunHyuk HAN Seok Hyun	Member of Super Junior, SM Entertainment Installation Artist
Yuval Noah HARARI	Professor of History at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JEON Chi Hyung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cience, Technology, and Policy, KAIST
JO Won Kwang	Research Professor, The Institute for Social Data Science, POSTECH
KIM Hong-Jung KIM Youngsun	Professor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ording Artist, Professor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Ilektra KOULOUMPI KWAK Seung-young	Senior Cities Strategist, Circle Economy CP(Chief Producer), SBS Entertainment Headquarters
LEE DaeHyung	Art Director, HZone
LEE Jinha	Co-founder and Chief Product Officer of Spatial
LEE Wan	Contemporary Artist
Kelly MCGONIGAL	Lecturer in Psychology at Stanford University
MO Jongryun	Professor,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PARK Buhm Soo SHIN Wooseok	Director, Center for Anthropocene Studies, KAIST Partner at Bain & Company
ShinDong	Member of Super Junior, SM Entertainment
YOO Hyunjoon	Professor,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Architecture & Urban Design Architect
YOU Myoungsoo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O Youngjoong	Partner at Bain & Company
CHOI Hye-Rim JO Jung-Shik	SBS announcer SBS announcer
KIM Hyun-Woo KIM Joo-Woo KIM So-Won	journalist at SBS SBS announcer SBS announcer



주최
Organized by



포럼 파트너
Forum Partners



SBS D 포럼 만든 사람들

기획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회 SDF팀 고철종 SBS 논설위원실장 이정애 SBS SDF 팀장/부장 정성엽 SBS 차장/기자 하대석 SBS 차장/기자 안서현 SBS 기자 류란 SBS 기자 최예진 작가 최유진 작가 신소희 그래픽·디자인 감독 임세종 촬영감독 진화선 영상감독 김원기 SBS 사원 (보도운영) 김상영 행정	중계	기술감독 이원우 SBS A&T 부장 영상 안한백 SBS A&T 차장 음향 이흥재 SBS A&T
연출	하승보 SBS 국장 최성락 SBS 차장/보도본부 피디 안철호 SBS 차장/제작본부 피디 안재철 SBS 차장/제작본부 피디 홍성우 PD/ 굽텐더브로드캐스트 배현집/조연출	기술•카메라•조명 기술감독 영상	안창준 SBS A&T 차장 고재경 SBS A&T 차장 정준영 SBS A&T 차장 녹화 음향
AR	제갈찬 SBS A&T 차장 이준호 SBS A&T 사원 유원인포시스/서강욱 강민철 정슬기 기민영 채민규 김종신 프리즘씨엔앰	카메라	노경남 SBS A&T 박준범 SBS A&T 윤권일 SBS A&T 차장 김태식 SBS A&T 조형곤 SBS A&T 이상명 SBS A&T 부장 김천종 SBS A&T 부장 이은우 SBS A&T 부장 김현호 SBS A&T 차장 이철 SBS A&T 조진현 SBS A&T 송낙훈 SBS A&T 황인욱 SBS A&T 손영준 고점준 차동준 문정도 신성숙 SBS A&T (퍼스트) 강신웅 SBS A&T (퍼스트) 최종철 SBS A&T (퍼스트) 이명호 SBS A&T (퍼스트)
세트	이용탁 SBS A&T 차장 (미술감독) 나혜연 SBS A&T (미술감독) 송주영 (무대제작) 김유신 SBS A&T 차장 (소품) 김동열 이준희 김용선 성명영 (전시) 비전 CI/박영도 김호철 정태순 강효원 (LED)	조명	이은범 SBS A&T 차장 전승훈 SBS A&T 사원 유유스테이지 (외부 조명)
비주얼 디자인	문상훈 감독 (기획 및 제작) 주지윤 (인쇄물 디자인) 최지유 (LED/CV 디자인) 김지영 (발표자료 디자인) 섹션 나인/양석훈 (LED VJ) 백지원 (자막 디자인) 이경숙 (자막 운영)	분장·헤어 외부음향 지미집	홍찬희 황인혜 김영환 김명조 김은희 최민지 서울음향/고종진 세눈/윤찬웅 김정훈 임주성 박재웅 양홍석 마명준

음악·음향효과	윤재영
웹서비스	SBS 디지털뉴스랩 정인영 팀장 이상훈 부장 임효진 대리 김유경 차장 오수연 차장 박진호 과장 오윤지 대리 김도희 대리 김민정 사원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	해든브릿지 (브레이크아웃) 이테크시스템(시스코웹엑스) / 서용상 김성수 전재형
대행사	지엘컴 김다애 본부장 김지선 팀장 성영현 차장(등록팀) 배성아 사원 김성아 대리 (연사행정팀) 정혜진 대리 이지연 차장 (통역관리) 김홍 사원 (운영팀) 유안상 사원